2005년 석사학위 논문

# 칼빈의 교회론을 중심으로 본 교회의 본질과 사명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 회 학 과

고 점 석

# 칼빈의 교회론을 중심으로 본 교회의 본질과 사명

지도교수 한 성 기

이 논문을 목회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 회 학 과
고 점 석

이 논문을 고점석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04년 12월 9일

주심 이 [illegible]

부심 김 영 일

위원 장 화 선 H. S. Chang

위원 한 [illegible]

위원

감사의 글

한 없은 사랑과 열심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교회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신앙의 본과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김성봉교수님과 김영규 교수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히 지도해 주신 한성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어린시절부터 아낌없는 정성과 기도로 키워주신 문성교회와 이승조목사님, 군시절부터 지금까지 참 목자의 자질로 훈련시켜 주신 국국교회 리상숙 목사님, 그리고 제 삶의 모든 부분을 살피시며 바른 신앙으로 지도해 주신 이승훈, 신정희 부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식을 끝까지 밀어주시며 도와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동역했으며,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의 손을 모으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께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탄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소망을 잃지 않으며,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부르심에 감격하며, 끝까지 주님사랑 교회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다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을 꿈꿉니다!

목 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 3

Ⅱ. 교회에 대한 어원적 이해 ---------- 4
1. 구약의 명칭 ---------- 4
2. 신약의 명칭 ---------- 4
3. 교회를 나타내는 성경의 다른표현들 ---------- 5

Ⅲ. 칼빈의 교회론과 그의 견해들---------- 8

1. 교회의 본질에 대한 칼빈의 견해 ---------- 8

1) 구원받은 총수로서의 비가시적 교회 ---------- 8
2)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가시적 교회 ---------- 9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 10
4) 선택받은 백성으로의 교회 ---------- 12

3. 칼빈의 교회와 관련된 여러 견해 ---------- 13

1) 교회의 표지에 대한 견해 ---------- 13
2) 칼빈의 기도에 대한 견해 ---------- 15
3) 칼빈의 교육에 대한 견해 ---------- 18

4) 칼빈의 선교에 대한 견해 ---------- 23
5) 칼빈의 문화에 대한 견해 ---------- 25

Ⅳ. 칼빈의 견해를 통해 살펴 본 교회의 사명 ---------- 26

1. 교회의 본질회복 ---------- 26
2. 바른 예배의 회복과 시행 ---------- 28
3. 기도의 사명 ---------- 31
4. 선교의 사명 ---------- 32
5. 교육의 사명 ---------- 33
6. 문화적 사명 ---------- 39

Ⅴ. 결론 ---------- 42

참고문헌 ---------- 44

# Ⅰ.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과거의 한국교회 부흥은 역사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혼율이 급증하는 사회의 현실과 죄악된 문화가 범람하는 현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나타내기보다 사회의 지탄을 받기까지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떠한 프로그램을 찾기에 빠르고, 은사중심, 기복적인 성향은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경건의 능력은 잃어가고, 교회의 모습들은 다양함을 넘어 혼란스러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어찌하여 한국교회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이르게 되었는가?' 살펴 볼 때에 본인은 첫째로,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요, 둘째로, 교회의 바른 사명과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홍전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에 대하여 언급하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명확하게 쥐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도리는 희미하고 따라서 그 내용이 생활 가운데서 증험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서 빚어진 불순과 혼탁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생의 도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1]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한다.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위치와 역할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은 바로 신자의 어머니가 흔들린다는 것이요, 어머니가 흔들리는 가정 안에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모습, 그리고 교회의 참된 성숙의 모습

1) 김홍전, 「중생자의 생활」 (서울: 성약출판사, 2001), p. 190.

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엡 5:25)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회는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저마다 사랑하는 방식과 모양이 다르게 된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성도의 단체로 그 본질을 생각하였으며, 2세기 이후 특히 로마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지남에 있어서는 그 관점의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로마카톨릭에 반기를 든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들과 같이 외부 조직에서 그 본질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면적 또는 영적 교통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았다. 루터는 교회를 의로운 믿음을 가진 성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 하였고 칼빈은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종합하였다. 한편 근대에 이르러 몰트만은 교회를 '선교'로 이해하려 하였다. 현대에도 교회론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2)

그 다양한 견해와 방식들 중에는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고, 그 힘을 잃게 하는 오류들이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다.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바른 지식이 필요하듯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아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 시작이요, 핵심이라 하겠다.

한편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아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

2) E. G Jay, 「교회론의 역사」, 주재용 역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p. 284.

다. 물론 교회의 본질 자체에 그 실천적 의미가 있겠으나 자신의 임무를 확실히 알고 싸우는 군인은 단순히 지키는 군인보다 강하며, 더욱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믿기에, 논자는 교회의 사명일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칼빈이 말하는 교회론에 비추어 논하려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교회의 폐단인 '기능적 면의 지나친 강조로 인한 교회의 본질훼손'을 지적하고, 또한 교회의 표지적 사명과 아울러 적극적인 면에서 바라본 예배, 기도, 교육, 선교, 문화의 차원을 사명으로 인식하여 드러내고, 개혁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대학시절에 음악교육을 전공한 본인이 바라 볼 때, 특별히 교육과 문화의 차원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사명'으로 인식하는 면이 약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 이야기되는 '교육의 사명'과 '문화적 사명'이 그 본질 안에서 교회적 사명으로 깊게 인식되어 사랑하는 조국교회와 이 사회에 더욱 선명한 하나님의 형상이 맺혀 가길 기대한다.

## 2.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칼빈의 교회론을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 밖의 그의 견해들을 근거하여 교회의 사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Ⅱ장 에서는 교회에 대한 기초적 이해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어원적 의미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제 Ⅲ장 에서는 칼빈의 교회론을 살펴보며 그가 제시한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연구하고, 아울러 그의 기도, 교회의 표지, 교육, 선교, 문화적 견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Ⅳ장 에서는 그가 제시하는 교회의 본질과 그의 몇 가지 견해들을 근거로 하여 교회의 사명을 제시하여 제 Ⅴ장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 Ⅱ. 교회에 대한 어원적 이해

1. 구약의 명칭 : 구약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카할과 에다를 사용한다. 카할은 어근 칼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다. 에다는 야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는 뜻이다. 이 두 단어는 빈번히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원래는 엄격히 말해서 서로 동의어는 아니었다. 에다는 약속에 따라 모이는 모임을 말한다. 이 단어가 이스라엘에 적용될 때에는 소집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이스라엘의 자녀들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 머리들로 형성된 사회 그 자체를 지칭한다. 반면에 카할은 백성들이 실제로 모인 모임을 말한다. 그 결과 종종 케할 에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회중의 모임'을 말한다. 수나고게는 70인역에서 에다의 통상적인 번역으로 사용되었으며, 모세 오경의 경우에는 카할의 번역어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성경의 후기에 속한 책들에 따르면, 후기 유대교는 이미 경험적 실재로서의 이스라엘의 회중을 지칭하는 수나고게와 이상적 공동체로 간주된 회중의 명칭으로서의 에클레시아를 구분한다.

2. 신약의 명칭 : 신약 성경에서도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두 단어는 모두 '70인 역'에서 유래했다. 하나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인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다른 하나는 수나고게로서 '오다' 또는 '함께 모이다'라는 뜻을 가진다. 수나고게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회합 또는 그들이 공적 예배를 위하여 모인 건물을 지칭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는 두서너 곳에서 민회를 지칭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가리킨다.[3]

3. 교회를 나타내는 성경의 다른 표현들 : 신약 성경은 몇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 말하고 잇는데, 각각의 비율은 나름대로 교회가 지닌 특수한 면을 강조한다.

① 그리스도의 몸 :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엡 1:2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몸의 일부로 여기시며, 또 그렇게 될 때 완전한 몸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그러나 그 점을 오해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분리되면 무엇인가 불완전하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곧이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란 말을 첨가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며, 또 어떤 점에서는 우리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의 빈곤이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나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이다."[4]

이 명칭은 보편 교회에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엡 1:23; 골 1:18), 단일한 회중에게도 적용된다(고전 12:27). 이 정의는 지교회와 보편 교회를 포함하는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는바, 특히 교회가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과 교회라는 유기체는 그의 영광스러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3) 루이스 벌콥, 「조직신학 하」, 김수경 외 1명,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1), pp. 810~813.

4)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 20」, (칼빈주석출판위원회, 서울: 성서원, 1995). p. 280

한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신부(엡 5:25)로, 그리고 그의 몸으로 여기신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명예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의 영광과 자부심은 교회의 규모와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몸의 머리'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② 충만 (플레로마) :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엡 1:23)

"...만물이라는 말을 본문의 문맥에만 국한시켜 보아도 모순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뜻과 능력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특별히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영적 통치에 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이것을 세계 전체의 통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지장될 것은 없다."[5]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칼빈의 견해대로 하나님은 교회에 영적통치의 권한을 주셨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그는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며,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충만케 하시고자 뜻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세상을 충만케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논자가 말하고자 하는 사명을 유추하는 논리의 당위성이 있다 하겠다.

③ 성령의 전 혹은 하나님의 전 : 이 명칭은 미래의 이상적인 교회 곧

5) libd. p. 280

보편 교회에 적용되었다. 베드로도 신자들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로 세워진다고 말한다.(벧전 2:5). 베드로는 여기서 성전을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 비유는 교회가 거룩하고 불가침의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성령이 거함으로써 교회는 그 성격이 고양된다.

④ 위에 있는 예루살렘, 혹은 새 예루살렘, 혹은 하늘의 예루살렘 : 이 세 가지 형식이 모두 성경 안에서 발견된다.(갈 4:26; 히 12:22: 계 21:2)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접촉하는 곳을 상징하는 장소와, 스랍과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대표한다. 신약성경은 교회를 구약의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영적인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표현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류하는 곳이다. 이 처소는 부분적으로는 땅 위에 임하지만 천상의 영역에 속해 있다.

⑤ 진리의 기둥과 터 : 이 명칭은 '딤전 3:15' 한곳에 나온다. 이 명칭은 일반적인 의미의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교회의 각 부분에도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에 대항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는 요새이며, 진리를 변증하는 자임을 보여준다.[6]

이상에서 살펴볼 때 교회의 본질은 외적인 기구들을 갖추는 일보다는 오직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직과 기구와 외적인 비대함 등등의 면들은 그 본질적 내용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바로 그것에 있다.(마

6) 벌콥, op. cit. p. 814.

16:16~19).

## Ⅲ. 칼빈의 교회론과 그의 견해들.

### 1. 교회의 본질에 대한 칼빈의 견해.

칼빈은 교회의 개념을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로 구분하여 말한다.

"우리는 성경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말한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이 교회는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성령의 성화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가 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교회는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지창조 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은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각지에 산재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때가 많다.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며, 성찬에 참가함으로써 진정한 교리와 사랑에 의한 우리의 연합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일치하며,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직을 보존한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교회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만 보인다고 믿어야 한다. 그와 같이 우리는 나중에 말한 것, 즉 사람들과 관련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중히 여기며 그 교회와의 교통을 계속하여야 한다.[7]

#### 1) 구원받은 총수로서의 비가시적 교회

---

7) 존 칼빈, 「기독교 강요(상)」, 한철하 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8), 4.1.7.
이제 아래에서는 기독교강요를 Inst로 약칭하기로 하겠다.

그는 강요의 처음 '프랑스 왕에게 드리는 헌사'에서 "교회는 어떠한 유형적인 형태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당시 가견적 교회에만 치중하며 타락해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8]

불가견적 교회는 우리는 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이다. 이러한 불가견적인 교회론은 칭의론을 말하는 루터의 교회관과는 다른 것이다. 칼빈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특히 선택과 관련지어 말한다.

### 2)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가시적 교회

교회의 본질을 말할 때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한다. 그는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의 제목을 "모든 경건한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라고 쓰고 있다. 어머니라고 말하는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칼빈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제목으로부터 배워야 하며, 교회라는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고,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지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한다.[9]

---

8) Inst. "프랑스 왕에게 드리는 헌사" 6교회에 대한 그릇된 견해 중.

9) Inst. 4.1.1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는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강조한다. 이것은 로마카톨릭의 견해와는 다른 것이다. 그들은 교회가 그 자체로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반면 칼빈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외적인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말씀과 성례전을 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주는 영적 양식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 받기에 합당하다'고 칼빈은 말한다.[10] 로마카톨릭에서 '교회는 어머니'라는 말을 사용한 목적은 교회의 절대권을 주장하려는 것이었다. 반면 칼빈은 그러한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강조한 말이며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진 로마 교회와는 달리, 어머니로써 자식을 보호하고 훈련하듯 신자들의 신앙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교회의 교육훈련을 강조한 칼빈의 교회관은 제네바 교회에서 뿐 아니라 그 후 개혁교회의 특성을 이루는 동기가 되었다.[11]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본인이 이 논문을 전개하며 교회의 사명을 이끌어 내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으나 예배, 기도, 교육, 선교, 문화에 대한 그의 견해에 있어서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되심을 말하며 칼빈은 다음과 같이 카톨릭의 교황제에 대하여 견제한다.

---

10) Iibd.

11) 박근원,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기독교서회, 1990), p.167.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머리이시며, 우리는 모두 그의 지배 하에서 그가 제정하신 질서와 조직에 따라 서로 연합된다. 교회에 머리가 없을 수 없다는 구실로 세계 교회 위에 한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현저히 모욕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12]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주로 모시고 섬긴다. 그러므로 어느 한 개인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며, 참된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면서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강조한다.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머리(그리스도)를 앙모할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일치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13]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이단들과 분파를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을 견제하면서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엡 1:23).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연합이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엡 4:12).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라며(엡 4:15)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14] 그리스도는 그가 원하시

12) Inst. 1.6.9

13) Inst. 4.1.2.

는 봉사를 받기위해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어 교회의 전체의 건덕을 세우도록 하신다고 칼빈은 강조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은 각자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려 하기보다 상호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개인의 주권행사를 통한 교회의 파괴적 위험요소는 제거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원을 두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리가 손색되지 않고 보존되게 하시려는데 있다. 교회는 이를 존중하며 성도 간에 상호 봉사해야하며 친교 하여야 한다.[15]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키신다고 말한다. 로마교회가 가시적 측면을 말하는 것과 달리 칼빈은 비가시적인 교회로 이해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할 때 '성도의 교통'이라는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16]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과 교제를 통하여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 4) 선택받은 백성으로의 교회 - 예정론에 입각한 교회론

'교회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구원의 언약에 기초한 택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의해서 죄의 상태로부터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은혜의 상태로 부르신, 택자들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로서의 사람들의 공동체 혹은 회집이다'[17]고 말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4)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성광문화사, 1997). pp. 199~200.

15) libd.

16) Inst. 4.1.3.

17)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 Ⅳ, 교회론 종말론」 (서울: 안양대학교신대원, 2001). p.2.

그럼으로 우리는 성경에 밝힌 나타난 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의 영원불변하신 계획에 따라 구원에 이르게 할 자들과 멸망에 이르게 할 자들을 결정하셨다. 우리는 선택된 자들에 관한 한 이 계획이 무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간의 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공정하고 비난할 수 없는, 그러나 불가해한 판단에 의해 그가 파멸에 넘겨준 자들에게 생명의 문을 폐쇄시켰다. 지금 선택된 자들 중에 우리는 소명을 선택의 증거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성취되는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칭의를 또 다른 표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소명과 칭위로써 보증하시듯이, 유기된 자들을 그의 이름을 아는 지식과 혹은 성령의 성화로부터 차단시켜 버리심으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계시하신다.[18]

구원의 서정(성화)과 예정의 내용과 목적으로 예정론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 나타나 있다. 스코틀랜드의 John Forbes의 칭의론에 따르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모든 축복들은 채택에 대한 예정에 다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채택과 그것에 분리할 수 없는 부착요소들의 필연적 결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칼빈의 경우 중생의 개념을 성화와 구별되지 않은 의미에 가깝게 사용하고 있다.[19]

## 2. 칼빈의 교회와 관련된 여러 견해

---

18) Inst. 3. 21. 7.

19)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 III, 구원론」, (서울 : 개혁주의 성경 연구소, 2003). pp.29-30.

### 1) 교회의 표지에 대한 견해

논자가 이 시점에서 교회의 표지를 논하는 이유는 '교회(가시적)란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한 개혁주의적 정의를 내림으로 본질을 근거한 교회의 사명에 대한 합당한 논지를 펴기 위함이다.

칼빈은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실제로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칼빈이 다루고 있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였고 그는 이것만이 실제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구별하기를 주저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로 구분함은 신자들로 하여금 불가시적 교회의 본질을 의식하면서 가시적 교회에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20]

#### a. 교회의 표지 : 말씀과 성례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며 또 듣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지킬 때에,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교회를 지탱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너지게 될 때 교회는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참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딤전 3:15)라고 한다면 기만과 허위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교회가 존재 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21] 교회는 진리의 터이다. 교회는 진리에 근거를 두고 세워져야 한다(마 16:18). 교회는 교인이 많거나 건물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진리라는 터 위에 세워졌음으로 견고하고 튼튼하다.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훈(교리)위에

---

20) 박성덕, "칼빈의 교회 표지에 관한 말씀선포와 성례", (합동신학대학원 학위논문, 2000). p. 40.

21) Inst. 4.2.1.

세워졌는데 그 교리가 파괴된다면 교회는 기둥이 무너지어 터가 훼손되는 것이다.

b. 교회의 표지와 예배

말씀선포와 성례의 시행을 교회의 표지로 말한다면 신자가 모여 이를 행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예수님께 직접 교회에게 명령하신 성찬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다. 중세 교회가 미사를 행한 것을 가리켜 중세 교회의 예배는 성례전 중심의 예배라고 말하기도 하나, 종교개혁자들은 성례전이 없는 예배임을 지적하였다. 중세교회는 말씀을 소홀히 하는데다가 성찬의 화체설을 받아들여 성찬의 신비성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높이고 강조한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에서 성경 봉독과 설교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예배를 개혁했으나, 성례를 소홀히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22]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성례가 시행될 때에는 언제든지 그는 살아서 우리와 만나시고 그가 계신 곳에는 그의 백성도 거기 있게 된다. 말씀과 성례에서 그리스도가 인정되고 주로 높이 들리움을 받는 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23]

## 2) 칼빈의 기도에 대한 견해

a. 칼빈의 기도 론의 위치

22) 김영재, "교회와 예배",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5), p.104.

23) 고형배, "칼빈의 교회의 본질과 발전연구"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2002). p.17.

역사적으로 유명한 기도론 중에서도 칼빈의 기도 론은 두드러진 면모를 보인다. 터툴리안과 오리겐, 그레고리와 그리고 성 어거스틴의 논문들이 다 좋은 기도 론으로 꼽히지만 그의 기도론은 이를 능가한다.[24]

칼빈에게 있어 기도론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주요 훈련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참 증거를 내 놓는다"고 말한다.[25] 믿음이 있다면 게으를 수 없고, 당연히 기도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론은 기본적 지식부터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목과 그 밖의 다양한 생활의 면까지 비교적 자세하고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는 기도에 있어 모국어의 사용을 정당화하고 찬송은 오직 시편에 곡조를 붙인 것만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칼빈은 찬양을 기도의 한 형태로 보았다. 칼빈은 음악이 언어의 힘을 증진시키는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견지하며 음탕하고 경쾌한 노래는 피하고, 다윗의 거룩한 시편에 그의 사상에 걸맞은 장중한 곡조를 붙인 찬양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6]

b.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부(富)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24) 신복윤, op, cit, p. 239.

25) Philip C. Holrop, 「기독교강요 연구 핸드북」, 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p.257.

26) 존 칼빈,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p. 159.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친교가 있으며, 이 친교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직접 하나님께 그 약속에 대하여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다. 주의 복음은 보화가 묻혀 있는 곳을 가리켜 주었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본 그 보화를 기도로 캐내야 하는 것이다.[27]

보화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캐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자는 게으를 수 없으며 기도는 신자에게 나타날 증거와도 같은 것이기에 기도를 등한시하는 신자는 정말 참 신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제정하신 목적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기도로 증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 제사의 유익은 우리에게 돌아온다.[28]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함에도 기도에 열심을 품지 않는 많은 신자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기도가 없이는 참된 신앙의 열의를 가질 수 없으며, 죄를 다스릴 수 없으며,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도는 신자의 호흡과도 같음을 알게 된다.[29]

---

27) Inst. 3. 20. 2이하

28) Iibd.

c. 기도의 원칙

칼빈은 올바른 기도의 원칙을 네 가지로 말한다. 그것은 경외, 참회, 겸손, 확신의 찬 소망이다. 그의 다른 신학전개 방식과 같이 이 교리도 경건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는 셈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정신과 마음으로 갖추어야"하며, 정신과 노력"을 다 기울이되, "자주 발생하는 대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산만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구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게 과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진심으로 생각한 뒤 그것을 얻으려는 진실한, 아니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실로 "우리는 두려움 자체에서 한시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다."[30]

3) 칼빈의 교육에 대한 견해

칼빈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육에 힘쓴 사람이었지만 미국의 교육학자인 듀이(John Dewey) 나 허만 혼(H. Horn) 등과 같이 교육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아니었다. 칼빈은 자신의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천한 교육 실천가였다. 칼빈은 교육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당시의 교육방식대로 교육을 받았고 또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의 교육 활동을 통해 교육의 방법에 대한 그의 견해를 어느 정도 짐작할

29) 신복윤, op, cit, p. 243.

30) Philip C. Holrop, op, cit, p.258.

수 있다.

a. 칼빈의 성경관

칼빈의 사상은 매우 엄밀하게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칼빈은 말하기를 "나 요한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 있어서 신언의 목사이다."(CR. 29, pp.299)[31]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성서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참되고 정단한 교리에 관해서 매우 적은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고정된 원리라고 생각하였다.[32]

칼빈은 또한 그가 방대한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은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길잡이로 사용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본 저서에서 내가 의도하는 것은 신학 공부를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언을 읽도록 하여 이를 교육하고자 함이요, 따라서 이들이 신언에로의 정도를 발견하며 방해를 받는 일이 없이 계속 신언 안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Niesel: Opera Selecta Calvini, 3,6,18)[33]

성경의 신적 권위에 있어 칼빈은 '성경의 효과는 신적저작권(伸的著作權)인정 여하에 달려 있으며, 그러한 인정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것을 성경자체가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는 사실을 칼빈은 확신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저작임을 자증(自證)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자증한다는 말은, 성경이 본래적으로 자체의 신적 기원, 신적 성격 및 신적 권위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다.[34]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알미니안적이고

---

31)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p.71.

32) Inst. 1. 6. 2.

33) 이종성, op.cit, p. 78.

인본주의적 시도와 학문들이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칼빈의 성경관은 교회와 교육의 기반이 되는 관점이라 하겠다.

b. 칼빈의 인간관

칼빈은 인간의 전 존재의 의미와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였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강조한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남아 있다. 그러나 부패가 너무 심하여 남아 있는 형상까지도 그 모양을 잃은 채 기형이 되어 버렸다. 이런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생을 통해서만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무질서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물의 질서가 회복된다.[35]

c. 교육의 목적과 방법

칼빈에 의하면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모든 활동의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첫째 되는 목적, 곧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칼빈의 이 교육 목적은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도 적용된다.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의 학장이나 교수들이 취임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뿐 아니라 시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선서하게 하였

34) 신복윤, op. cit. p.46.

35) Inst. 3.2.15.

다.[36]

교육의 방법에 있어 칼빈은 그 당시의 주입식, 단계식 교육을 그대로 실시하였다. 칼빈은 문답식 교육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제네바 교회의 요리 문답"에서 잘 나타나있다.

칼빈은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아주 중시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교사의 인격은 아동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만일 교훈하는 방법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교사 자신의 인격의 자연적 표출이 곧 방법이 된다고 보았다.[37]

칼빈의 교육방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한 방법이 교육의 목적이 지향하는 바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행동 법칙들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교육의 방법도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고 성경의 조명 아래 평가받고 재해석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38]

d. 칼빈의 교육활동

① 목회와 저술을 통한 교육 활동 : 칼빈의 목회적 교육활동은 설교를 통한 것과 의회 문서를 통한교육활동이 있다. 칼빈은 철저히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설교에 충실하였고 성경의 계속된 강해가 곧 그의 설교였다. 한편 칼빈은 "제네바 조문", "신앙고백서"등을 통하여 교회의 사회의 질서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칼빈은 어린이들도 역시 교회에 대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어린이들은 요리 문

---

36) 류성애, "존 칼빈의 교육사상 연구", (고신대학교대학원, 1997). p.37.

37) 이종성, op. cit. p.10.

38) 류성애, op, cit, p.44.

답으로 개별적인 교육을 받아 그들이 세례 받을 때에 증거할 수 없었던 믿음을 교회 안에서 증거할 수 있게 하였다.[39]

칼빈의 저술 목적은 첫째로, 기독교의 교리를 가능한 한 단순하면서도 조직적으로 해석하여 기독교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고 둘째는, 복음주의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인데 전자가 후자보다 중요함을 볼 수 있다.[40]

② 학교 건립을 통한 교육

칼빈은 "교회헌법"에서도 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1559년 6월 5일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이 아카데미의 설립 목적은 정부 관리를 양성하는 것 뿐 아니라 목회 사역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었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로, 학생들의 진급이 종합 성적의 평가로 이루어 졌다는 점인데, 이는 사상 처음으로 학년제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사에 학급편성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물려주었다. 다음으로 이 아카데미는 처음부터 국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제네바 아카데미가 건립된 이래로 프랑스 전역과 전 유럽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개혁주의 교회의 역군으로 파송되었다.[41]

"칼빈은 교육을 영적인 질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교사의 임명에는 목사의 동의가 따라야 했다. 학교는 무지함이나 거짓된 교리에 의하여 복

---

39) libd. p. 60.

40) libd. p. 64.

41) 손인수, 정재철, 「서양교육사」 (서울: 교육 출판사, 1967), p.88.

음의 순수함과 교리의 건전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학교는 배움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42]

칼빈은 학교건립의 목적과 운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 그 중심으로 삼았다. 여타의 학문의 중요성을 알고 교육과정의 포함하여 교육하였으나 칼빈에게 있어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실현이요, 더욱 중요한 학교 건립의 목적인 것이었다.

### 4) 칼빈의 선교에 대한 견해

#### a. 선교에 대한 신학적 입장들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임무 중의 하나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등장은 교회를 선교에 귀속시키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다른 입장을 취하여 하나님은 교회의 중보 없이 세상에서 역사하신다고 주장한다.

몰트만은 교회의 본질을 선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는 선교에 대해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에서의 경제적 필요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노예 상태로부터 인간의 해방에 봉사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그는 선교를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칼빈이 말하는 교회론은 이

---

42) Robert Ulich, <u>A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u>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8), p.123. 재인용, 류성애, op, cit, p. 61.

를 지지 하지 않는다.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 선교의 부수적인 한 부분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 배제된 경제적 빈곤의 해결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43]

b. 예정론에 대한 오해

혹자들은 칼빈의 예정론이 선교사상을 성장시키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오해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어거스틴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우리는 누가 선민에 속하며 누가 선민에 속하지 않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평화를 갖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44]고 하였다. 예정론을 고수하는 자들이 동시에 선교사업의 지지자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 부쳐(Bucer), 캐리(W. Carey), 카이퍼(A. Kuyper)등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

c. 칼빈의 선교사상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상은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져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고 선교사상은 실제적인 적용은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우주적인 의미가 그의

43) 신정호, "칼빈과 몰트만의 교회론 비교 연구" (고신대학교신대원, 1997). p.60.

44) Inst. 3.13.12-14.

저서, 특히 선지서의 주석과 주기도문의 해설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그는 또한 기독교는 이교도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며 당 위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진실한 의미에 있어서 선교사업을 위한 영적 아버지격인 것이다. 칼빈이 살던 시대에 있었던 곤란한 상황(당시 선교가 가능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로마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었다)으로 말미암아 발전되지 못했던 강한 선교 열심이 잠재적인 칼빈의 저서 속에서 발견된다. 그의 선교사상의 두 측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학적인 면과 영혼구원의 구원론적인 면이다.[45]

### 5) 칼빈의 문화에 대한 견해

#### 문화적 관조주의

칼빈의 문화에 대한 태도는 '문화적 관조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김영규는 이것이 문화인식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일반계시에 대해서 화란의 신칼빈주의 신학이나 다른 문화적 적극주의보다 칼빈 자신의 태도와 같은 문화적 관조주의가 더 좋다고 그는 말한다. 이는 문화적 적극주의가 문화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다고 문화적 방관주의나 문화적 관용주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관조주의의 경우, 잘못된 것을 분명히 고백으로 표현하나, 그것을 바꾸거나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

45) 정성구, "칼빈주의의 선교", '개혁주의 자료집', (합동신학대학교, 1998), pp. 350~351.

를 나타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관조하는 자는 전 삶을 통하여 마치 순례자, 나그네, 외인처럼 땅에서의 삶과 문화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태도는 적극적으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나타나고, 소극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곤비한 자, 순교자로서 살아 갈려는 태도가 거기에 나타난다. 동시에 사회의 변화와 소동에 특별히 민감하고 적극적이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46)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신으로부터 발원되지 않고 확고하게 배워야 할 가치가 내포되어 있고, 정당한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러한 예술은 의심의 여지없이 성령으로부터 발원되었다. 그리고 예술로부터 경험되어지거나 유래되어지는 이익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만 한다."47)

## Ⅳ. 칼빈의 견해를 통해 살펴 본 교회의 사명

### 1. 교회의 본질회복

#### a. 예정의 목적을 따르는 교회의 목적 : 성화

교회의 본질을 말함에 있어 얼마나 교회의 본질을 지키었느냐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과,

---

46) 김영규, "개혁주의 문화관", '개혁주의 자료집' (합동신학대학원, 1998). p. 331.

47) Elmer L. Towns ed,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Grand Rarids: Baker, 1975), p. 217. 재인용, 류성애, op.cit. p. 37.

그 말씀을 충실하게 따랐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김홍전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거세적인 배교'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48] 그는 배교가 발생하는 조건과 과정을 개인의 세속화와 사단의 활동으로 말한다. 개인의 세속은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이다. 또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는 성도들을 휩쓸려 하는 사단의 시도들은 이미 우리의 현실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의 교회론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가 그 근원을 이루고 있다. 그는 예정의 목적를 두 가지로 들어 말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glory of God)요 둘째는, "우리의 성화"(our sanctifcation)[49]이다. 하나님의 예정적 관점에서 교회의 목적은 거룩이며 이 거룩함을 지향하는 성화적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며, 그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사는 나그네 삶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중생하여 거룩한 뜻만을 위하여 살게 되는 사람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이다.[50] 예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자는 당연히 성화를 그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된다. 이것이 부르신 자의 뜻이기 때문이다.[51]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살전 4:7)라고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의 목적은 거룩함이 되어야 하며 이 거룩함을 타협하게 하는 '세속주의', '성장주의', '기복주의', '개 교회주의'는 합당히 여겨 질 수 없는 것이다.

---

48) 김홍전, 「교회에 대하여 Ⅳ」, (서울: 성약출판사), p.31.

49) Fred H. Klooster,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칼빈주의 예정론", 최정희, (서울: 기독교문화사). p. 98.

50)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 Ⅲ, 구원론」, (서울 : 개혁주의 성경 연구소, 2003), p. 29.

51) 만세 전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시키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사 43:21) 정원태, 「열정칼빈주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p.31.

이와 같이 말씀과 성도의 거룩한 삶과는 절대적 상관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알려 주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확실한 표준이 되는 것이다. 칼빈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한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진로에서 탈선하여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무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는 말씀을 향하여 물어야 하고, 함께 생각해야 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52]

## 2. 바른 예배의 회복과 시행

### a. 성찬의 시행과 공동체성의 회복

김영재는 한국교회에 대한 제언에 있어 더 많은 성찬의 시행을 촉구한다. 그는 칼빈의 견해를 강조하면서, 성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구원을 확인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면, 우리의 주관적인 종교적인 만족감을 따라서만 빈도수를 줄이거나 늘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53]

---

52) 칼빈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하는 적정과 절도의 규범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학적 원리로서만 아니라 전 기독교적 교리와 기독교철학의 정초 및 바른 생활에 관련하여 오직 성경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하는 원칙으로 제시한 적정과 절도의 규범이다. 김영규, 「조직신학편람 Ⅰ」, (서울: 개혁주의성경연구소, 2001), p.12

53) 김영재, 「교회와 예배」,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5), p.65.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가 개인주의적 예배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있어 그 원인은 성찬의 시행이 적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54]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의 떡을 떼며 교회의 공동체성은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초대교회의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실업의 문제나, 이혼, 장애인의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한국교회는 더욱 깊이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b. 말씀의 강조

교회의 표지가 되고 예배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교회의 성례의 있어서도 말씀은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칼빈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였고, 처음부터 말씀과 성례를 평행적으로 다루었다. 이 둘을 동일선상에 둔 것은 아니고 성례는 말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보충적인 것이지만, 말씀은 성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완성적인 것이다. 성찬은 말씀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며 말씀 없이는 성찬의 요소들은 단순한 물이요 떡과 포도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칼빈은 말씀이 없으면 성찬은 바르게 집행될 수 없다고 한다. 로마 카톨릭의 모습처럼 성찬을 말없는 행사로 만드는 것은 가장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며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박혀 떠나지 않으며 그것이 약속하는 것을 실현함으로써 그 효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설교라고 말한다. 성례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더욱 확실하게 만드는 행사이다.[55]

---

54) 김맹호, "칼빈의 교회론에 조명한 한국교회"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3), p.36.

55) Inst. 4. 17. 4.

c. 예배의 바른 시행과 신학적 정립

이정현은 교회의 기능을 네 가지 즉, 예배(leitourgir), 전도(kerygma), 교육(didache), 봉사(diaconia)로 보고 이 기능들 속에서 예배는 그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는 '전도가 안되고, 기독교 교육이 엉망이고, 이웃을 향해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교회일 수 있으나 예배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고 말한다. 이토록 교회에 있어서 예배는 중요하며, 교회의 본질적 표현이다.[56]

본인은 대학과정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그분을 진정으로 높이는 길은 음악이라는 수단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그분이 정하신 말씀의 방식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삶의 유일한 방식과 양식으로 여기며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열린예배'나 '경배와 찬양'식의 예배 등이 한국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인도 적지 않은 시간동안 그러한 예배를 드렸고, 또 임원으로 활동해 보았으나 음악과 감성에는 민감하지만 정작 말씀이 강조되지 못하고, 말씀에는 익숙하지 못하게 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아쉬움을 갖게 된다. 그러한 예배방식의 유익성이 적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을 배려하고, 청년의 문화나 시대의 흐름을 따르려는 것이 정작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리를 조아려야 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존중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참된 유익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예배(새신자 예배나 음악을 주요수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일부 사람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배려하고 있지 못함을 기억해야 한다.

56)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서울: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01), p. 33.

한편 바른 예배의 시행에 있어 이를 지도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다양한 세속문화가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세속화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예배를 통한 도전과 교육, 문화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공예배의 강조'와 예배시행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신학적 근거와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57] 특히 오늘날 찬양의 시행에 있어서 교단 간의 통일되지 못한 견해도 있겠으나 같은 교단 안에서도 개 교회의 담임목회자에 따른 견해가 너무도 다양하고, 신학적, 문화적, 예배적 고민이 심히 부족한 상태에서 교회의 예배는 병들고 있으며, 많은 사역자들과 청소년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예배를 더욱 중요시 여기고, 바른 신학의 조명과 현 문화적 흐름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예배형식 및 교회적 모범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되며 말씀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교제에 있어 혼탁함이 아닌 온전하고 원활한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 2. 기도의 사명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막 11:17)

예수님은 기도를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는 특징적 요소로 말씀하신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였다(삼상 12:23). 그러므로 기도는 곧 교회의 공적 사명이요 성도가 죽을 때까지 쉬지 말아야 할 소명

57) 김영재, op, cit, p.64.

임을 기억해야 한다(살전 5:17).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04년 기도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 문성교회 교사 20명)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나타낸 응답은 분주함과 피곤함(70%)이었다. 새벽기도를 자랑하는 한국교회는 오늘날 기성세대와 청년 간의 맥을 잇지 못하는 기도의 열정이 식고 있음을 인식하고 더욱 더 빠르고 바쁘게 움직이는 시대 속에서 교회의 사명인 기도의 위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어느 민족보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오늘날 사회에서 도덕적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음을 볼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복적이고, 물질적이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기도로 흐르는 가운데 교회의 신앙과 경건은 과연 진보하고 있는가? 이러한 점에 있어 우리는 칼빈이 제시한 기도의 법칙 '경외, 참회, 겸손, 확신의 찬 소망'을 오늘날 교회의 법칙으로 여기고 그가 신학을 전개하는 방식을 이루는 '경건'과 '하나님의 영광'에 기도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58]

## 3. 선교의 사명

네 개의 복음서들이 모두 선교의 대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음을 볼 때 선교가 교회의 사명임은 매우 명확히 알수 있다. 칼빈주의의 선교활동은 신학적인 면과 구원론적인 면의 조화와 통일에 그 정점을 이루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신학적인 면이 구원론적인 면을 덜 강조되는 곳에서는 영혼사랑이 소실된 세속적인 칼빈주의만이 나타난다. 그러나 한편

58) Philip C. Holrop, op, cit, p.258.

구원론만을 강조하게 되면 선교임무에 관하여 수동적인 신비주의가 나타난다. 칼빈주의는 이러한 양면이 동시에 강조가 되어지는 주의이며, 이러한 양면적 강조는 선교사상의 근원적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함을 궁극적으로 가르쳐 준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20)만약 선교가 세속화되려는 위협을 받게 되면 성경은 이 선교를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 한다.[59]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심에는 거룩함이 목적으로 되어 있으며 성도가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당연한 연장선에서 선교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이다. 예정론의 잘못된 이해 뒤에 숨어 '복음전파'의 엄위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등한시한다면 이보다 부끄러운 성도의 모습은 없을 것이다.

비록 자유주의적인 견해가 선교의 불을 붙이는데 강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함의 동기는 '빚진 마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어야 한다. 아무리 커다란 선교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하여도 그 구원의 혜택 중 한 터럭의 부분이라도 자신의 행위나 의에 있다고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요, 참 성도라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가장 큰 상급과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에 품고, 선교의 사명을 적극적이고 온전하게 감당하여야 한다.

## 4. 교육의 사명

59) 정성구, op, cit, p. 352.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관을 말한다. 살인의 죄가 중죄가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 자라 하더라도 존중히 여기며, 교회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가진다.

둘째로, 인간은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모든 학생을 동등시해야 하고, 모든 학생을 진심으로 우러난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은 교사에게 뿐 아니라 학생에게도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넷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에게 도덕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사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은 학생의 도덕성의 계도로 이룩되는 사회 적응성의 함양을 하나의 주된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학생은 자유를 사용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과 자유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의 영적인 존재이다. 칼빈은 인간을 영혼과육체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영혼은 불멸적이고도 창조함을 받은 실제로서 인간의 고귀한 부분이다. 이 영은 오성(또

는 지성)과 의지로 구성되었다. 오성이 하는 일은 대상을 식별하여 대상을 각각 시인하던가 시인하지 않던가 하는 것이고, 의지가 하는 일은 오성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선택하고 추구하며, 오성이 거부하는 것은 거절하고 피하는 것이다. 사람의 영은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인간의 모든 사고와 정서와 행동과 생 전체를 결정하는 근원이다. 그렇게 때문에 교육은 이 영을 변화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인간으로 양육하는 것이다.[60]

a. 교육의 중요성 - 교리교육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우리고 그 앞으로 나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갈 바를 알게 하는 등이요, 우리와 주님을 보게 하는 빛인 것이다.(시 119:105)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가 허락된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은총은 더할 수 없는 주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그가 주장하시나 우리에게 기도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영혼의 열매를 기대하여야 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엡 2:20)

사도와, 교부, 변증가,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신학자들[61], 그리고 앞서

60) 김용섭, "존빈의 세계관, 인간관과 개혁주의 교육관", '고신대논문집', 제 13집(1985), p.89.

61) 개혁주의 신학은 개혁된 신학을 의미한다.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간 성도들의 목숨을 건 진리의 싸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서 '교리'가 존중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62)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이 개혁해 가는 교회여야 함을 위해서라도 이미 지나온 신앙의 유산들과 시행착오들을 살피지 않는다면 이단의 역사를 반복하는 탄식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이 말한 교회의 표지에 있어 나중에 첨가된 권징은 마땅한 교육의 연장선에서 더욱 깊이 생각하여야 하며 교회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권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교회는 마땅히 신앙의 유산이요 성경을 올바로 보는 수단인 '교리교육'을 성도의 어릴 때부터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와 부모에 대한 교육까지도 평생 신앙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

b. 공교육의 중요성

칼빈은 교회헌법을 제정하며 학교의 건립을 말하였고, 그 학교의 운영목적은 교회 뿐 아니라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 자들을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인하여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우신 공교육의 교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관심과 기도를 가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사범대학을 나온 본인으로서 오늘날 교회를 보며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것은

---

역사적으로 개혁된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종교개혁은 꿈이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의 불행이다. 참된 진리는 사고팔고 극한 고난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9), p. 60.

62) G.I . 윌리암슨, 나용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1999). p. 7.

조국의 교육현황에 그다지 많은 정성을 쏟고 있지 않으며 교회적으로도 교단 안에서만의 일에 급급하며, 개교회의 성장이나 사회적으로도 내 자녀의 진로와 성공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한 것이다

기독교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 아직도 한국 교회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곳은 군 선교와 그리고, 학원선교의 장인 것이다. 사립중고등학교에 있어 학교의 표방하는 종교의 행사는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며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학생들에게 기독학교는 너무도 좋은 전도의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립학교의 예배자율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모색될 수 있는 여러 복음전파의 방법과 가능성은 너무도 크다 아니할 수 없다.

c. 대학 캠퍼스선교에 대하여

또한 대학 캠퍼스선교에 있어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본인은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지역교회에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전도가 캠퍼스 안에서는 단 한마디에 2명을 전도하게 되는 일을 겪으면서 본인은 대학시절과 졸업 후 일년 동안 캠퍼스선교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반면 캠퍼스 선교는 몇 가지의 문제점과 당면과제들을 갖고 있다.

첫째, 지금의 기독대학들이 심지어 신학대학으로 시작한 학교들까지도(그 사정의 다양함은 있겠으나) 학교운영과 세상의 학문 가치와 취업 등의 이유로 세속화적인 기준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타협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대학 캠퍼스가 많은 선교의 열매를 기대할만한 점이 있으나 그 열매가 지역교회로까지 이어지는 체계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들어가 양육하는 체계와 진행하는 행사들에는 오늘날 교회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 많고, 또 적지 않은 교회가 이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은 칼빈이 말하고 우리가 따르는 정통 개혁주의적 교회관과 다른 부분이 있고, 지역교회에는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여기서 한국 교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를 극복하며, 재정적, 영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들의 단점인 새신자를 잘 놓친다는 것과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역교회가 돕고, 힘을 얻은 그들은 지역교회에 그들의 좋은 훈련과 인재들을 보내며 협력할 때, 한국 교회는 더욱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 캠퍼스가 많은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의 활동무대가 되기도 하지만 반면, 많은 이단들이 근거지를 삼는 소굴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본인도 유일하게 이단에 빠질 뻔한 경험이 대학시절 때였다. 사회의 법보다 어쩌면 학내의 교칙이나 명예, 선후배의 의리가 더 존중되는 대학교 안에서 비상식적이고 덕스럽지 못한 전도의 방식은 기존의 교회도 반성해야 하며, 한편 이단들의 활동들은 매우 주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단의 발견과 퇴치에 있어 소극적이거나 미약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찌 양을 늑탈해 가는 이리를 보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는가? 기독학교들과 선교단체들은 교리에 유산을 살피고 가르치며 성도들을 거짓의 세력에서 지켜야 한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자라는 대학캠퍼스의 교육과 환경을 지켜보며 이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이 거짓의 늪에 빠지는 것을 강력히 막아야 한다.

d. 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학교건립을 통한 교육에 있어 교회는 그 시작과 선두에 있었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모습에서 교회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는 많은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마땅히 이 나라의 공교육과 교사(칼빈은 교사의 인격을 매우 강조한다)들, 그리고 기독교 정신의 입각한 바람직한 교육의 장을 마련, 신앙을 계승시켜 나가는데 큰 열심을 내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흥미 있는 교육이나, 성공만을 위한 교육에 타협하여 바른 말씀을 통한 교육과 건전한 공교육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머지 않아 죄와 이익에는 빠르나, 진실과 미래는 없는 통탄할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5. 문화적 사명

a. '도덕법'에 입각한 적극적 문화관의 필요

김영규는 교회가 사회에 세속화되는 것을 견제하면서 개혁주의의 유산인 하나님의 뜻으로서 다양한 '도덕법'에 의해서 적극적 문화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칼빈의 종교 개혁적 원리인 율법의 제 3사용으로서 중생한 신자들도 율법을 바르게 사는 규범으로서 영원히 지켜야 하다는 원리로서만이 아니다. 이 법은 즉 성경에서 말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의 본성에 의해서 동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법으로서 따라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영원한 법으로서 요구하는 법이

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안식일이요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한 것으로 세속문화에도 그 법이 유효한 법을 가리킨다. 또한 안식년 제도는 고용제도와 실업문제, 휴가문화를 창출하는데 내적인 원리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일부일처제도 그런 법에 속한다. 새로운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회를 이루고 기독교 문화화하는 기틀이다. 예를 들어 국가지도자나 위정자의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자라 때의 도덕적 청결함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운동으로서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분위기와 가정과 청소년 교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63]

b. 예술에 대한 교회의 이해와 태도

여기서 칼빈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자 한다.

"미신으로부터 발원되지 않고 확고하게 배워야 할 가치가 내포되어 있고, 정당한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러한 예술은 의심의 여지없이 성령으로부터 발원되었다. 그리고 예술로부터 경험되어지거나 유래되어지는 이익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만 한다."[64]

칼빈은 사회의 문화와 그리고 예술을 부인하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등장하는 많은 영화 중에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혹은 일반계시에 있어 탁월한 지식과 감동을 주는 영화들이 적지 않다. 또한 음악회와 연극 각

63) 김영규, "개혁주의 문화관", '개혁주의 자료집' (합동신학대학원, 1998). p.332.

64) Elmer L. Towns ed,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Grand Rarids: Baker, 1975), p. 217. 재인용, 류성애, op.cit. p. 37.

종 공연이나 TV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교회문화와 기독인들의 영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첫째, 예술인들이 그들의 꿈과 소명(직업)의 길을 힘을 내어 걸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가 재정적 지원도 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65] 또한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교회를 통해 그들의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가령 음악컨서트나, 찬양발표회, 각종 세미나나, 연극공연, 영화상영, 그리고 미술작품 전시 등이 있겠다.

둘째로, 교회는 그들의 예술이 목적하는 바가 지나치게 세속적이거나 교회에 질서와 예배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음악을 잘하는 것이 찬양을 잘하는 것이 아니며, 재능이 많은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까지 스타의 대접을 받으려 하거나 겸손함을 붙들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나친 문화행사로 인해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거나 일부의 성도들이 위축감을 갖게 된다면 이는 덕스럽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셋째로, 교회는 성도들의 문화관에 있어 바른 식견을 갖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이승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를 존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폭넓은 사회적, 문화적 분석을 해야만 한다."[66]

---

63) 특히 교회에 관련하여 봉사하는 경우는 더욱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생계의 수단인 예술을 교회를 위해 사용함으로 (시대적 흐름에 의한 것일 수 있으나) 기본적 생계를 위한 수입의 기회를 교회의 봉사를 위해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덕스러움과 질서, 지나침이 없는 선에서 교회의 작은 지원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66) 이승구, "21세기 초의 개혁주의 문화 신학의 개념", '한국개혁신학회 논문집 제9권', (서울: 이례서원, 2001). p.43

오늘날 등장하는 TV와 인터넷의 발달속도는 제어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모든 정보는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안방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만을 진정한 의미에서 존중해야 한다. 매체의 발달 이면에 드러난 것은 정통 개혁신앙이 희미해지려는 모습과 죄악된 문화의 팽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견제와 대안들을 제시하여, 교회와 가정, 성도의 경건을 위해 힘써야 한다.

## Ⅳ. 결론

이상으로 칼빈의 교회론과 그의 견해,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교회의 사명을 유추하여 보았다. 논자는 다음과 같이 본 논문의 결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말씀의 권위상실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잘못된 수단들이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여 왔다. 역사를 이어 온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수많은 이단들이 정죄되고 있지 않는 지금의 유럽교회들과 미국의 현실은 바로 교회의 본질상실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교회의 본질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의 글로 여기며, 학문적 심취와 기복성, 성장 등을 위한 수단

이 우선이 되어버린 교회의 폐단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진리이신 주님을 진리를 거스리는 수단으로 섬기려는 것은 모순이며, 그분께 대한 무례함이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어린 교만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교회를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야 한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비추어 실추된 교회의 명예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며, 지체인 성도를 돌아보며,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모든 복지와 교육과 치료, 권징의 능력을 회복하고 더욱 충만케 하여야 한다.

둘째로,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예배, 기도, 교육, 선교, 문화의 사명을 충성되게 행하여야 한다. 군사가 명령에 민첩하고 신속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민감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근본적 삶의 동기 아래 우리는 더욱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계획, 실천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위의 제시한 다섯 가지 면에 있어서 교회는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명들을 시행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본질 안에서 더욱 구체화 및 성도에 상황에 맞게 적용 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신학자들과 기독학교,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들은 힘써야 한다.

만약 우리가 머물러 있기만 한다 하여도 우리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어느새 밀려들어오는 죄악의 세력에 떠내려가는 세상과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다! 때때로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접하며 마음이 아프고 실망을 하지만, 그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칭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는 감격의 찬양을 올리며 빚진 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진리가 그 빛을 발하게 될 때 풍성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위로받는 신자의 행복은 주님의 약속과 그 나라 안에서 영원무궁할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엡 1:23)

## 참고문헌

<번역서>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 칼빈주석출판위원회, 서울:성서원, 1995.

_____, 양낙홍, 「기독교 강요 초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_____, 김종흠 외 2명, 「기독교 강요」, 생명의 말씀사, 1997.

_____,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E. G Jay, 주재용 역, 「교회론의 역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Fred H. Klooster,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칼빈주의 예정론」, 최정히, 기독교문화사, 1998.

G.I . 윌리암슨, 나용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9.

헤르만 바빙크, 김영규, 「하나님의 큰 일」,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9.

루이스 벌콥, 김수경 외 1명, 「조직시학, 상」,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1.

Philip C. Holrop, 「기독교강요 연구 핸드북」, 이길상 역,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5.

<국내서적>

김영규, 「기독교강요 강독」, 서울: 개혁주의 성경 연구소, 2000.

_____, 「조직신학 편람 Ⅰ」, 서울 : 개혁주의 성경 연구소, 2001

_____, 「조직신학 편람 Ⅲ : 구원론」, 서울 : 개혁주의 성경 연구소 2003.

_____, 「조직신학 편람 Ⅳ : 교회론 종말론」, 서울 : 개혁주의 성경 연구소, 2001.

_____,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9.

김영재, 「교회와 예배」,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5.

김홍전, 「교회에 대하여 Ⅳ」, 서울: 성약출판사, 1999.

김홍전, 「중생자의 생활」 서울: 성약출판사, 2000.

박근원,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 기독교서회, 1999.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성광문화사, 1997.

손인수, 정재철, 「서양교육사」 서울: 교육 출판사, 1967.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4.

정원태, 「열정칼빈주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서울: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01.

이종성, 「칼빈」, 서울:대한기독교 출판사, 1978.

<간행물>

김영규, "개혁주의 문화관", '개혁주의 자료집' 합동신학대학원, 1998.

정성구, "칼빈주의의 선교", '개혁주의 자료집', 합동신학대학교, 1998.

<논문류>

고형배, "칼빈의 교회의 본질과 발전연구"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용섭, "칼빈의 세계관, 인간관과 개혁주의 교육관", 「고려신학대학원논문집」, 제 13집,
1985.

김맹호, "칼빈의 교회론에 조명한 한국교회"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류성애, "존 칼빈의 교육사상 연구", 고려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박상봉,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성덕, "칼빈의 교회 표지에 관한 말씀선포와 성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신성호, "칼빈과 몰트만의 교회론 비교 연구" 고려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이승구, "21세기 초의 개혁주의 문화 신학의 개념", 「한국개혁신학회 논문집 제 9권」, 서울: 이레서원 2001.